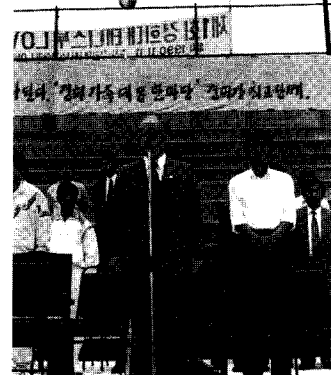




지난 19일부터 서울·수원 일캠프에서
서는 자주 경회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.
주최측은 대동제문화에 대해 새로운 모
색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학생들
의 참여율은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.
본사에서는 24일(월) 열린 대동제의
여러가지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.
이후 대동제문화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
릴지 기대한다. (편집자 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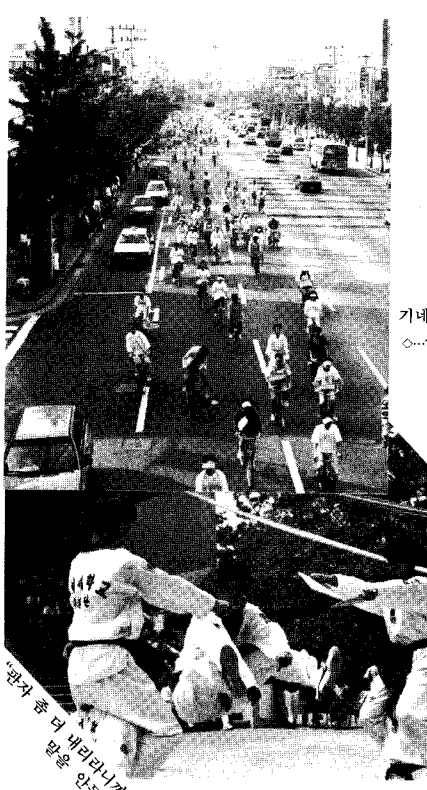
“에, 그러니까 경회인은 에...”
◇21일 제대원 운동장 경회가족한마당에서
조영식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



아자 경회! ◇20일 수원제대원 혁명광장에서 열린 경회음원 대제전
“포졸들은 뛰어나, 비폐문화
조장하는 저런사람
안잡아가고...”
◇19일 서울 대운동장의 통환
예술제중 무용학과 학생들의 공연



“너가 가냐? 그래 잘 만났다”
◇서울 공대앞 풀다방에서 한 남학생이 커피머신을 인형에 핀을 꽂고 있다.



“한자 좀 더 배려라니까”
◇19일 수원대의 민속광장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단 공연



기네스북에 오를 자전거대회
◇19일 독립문에서
출발한
자전거부대가
등용문을
향해
질주하고
있다



◇10일 수원대입시
마침내
하나됨을
위하여



민족 자주의 불, 경회 가슴 속에
활활 타올라라
◇19일 수원 개막식중 공대운동장에서의 모듬떡 점화

그시절 축제는

‘대학제’로 출발하여 해를 거듭할 수록
발전된 모습을 보여왔던 38년간의 역사
를 더듬어 보았다.
경회 대동제 1956년 10월에 최초로
개막된 고학술 최초의 축제 ‘대학제’는 6
· 25동란후의 일흔한 현실속에서 고동반
은 민중과 함께 하는 ‘시민의대의 밤’이라
는 해사로 꾸며졌다.
조창기의 ‘대학제’는 고등학생을 대
상으로 운영되며, 학력대회·농구경기등
의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하나되는 자
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.
‘대학제’에서 ‘학원제’로 명칭을 개편된
1962년 이후 경회의 축제 문화는 ‘경회
여학생광복’, ‘경회가족의 밤’, ‘마스케일’,
‘중앙운동회’등 행사의 내용이 이전과 비
해 다양해지고, ‘시민의대의 밤’이 ‘고학
학성의 밤’으로 변모하여 문화·예술 발
표의 장을 넓히게 되었다.
대학의 축제문화는 당시의 사회·정치
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회의 공과다.
1969년 14회 축제에는 학원사대로 행사가
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사회적 여건과 축
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
는 단면이라 하겠다.
1975년 이후 ‘학원제’는 ‘고학축전’으로
‘고학학성의 밤’이 ‘고학의 밤’으로 개칭
되고, 음악회·무도회·학생발표회 같은
축제적 성격과 학술적 성격의 행사들이
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학생에

(노정 작)

한주메모

▲17일-정치특위, 공직자
윤리법안에 대부분 합의, 4급
이상 재산등록은 확정.
-강산원, 6~7개 대학 천여
명 편입 출원 발표. 교수학보
하위보고 적발.
-12·12비하자 배상·보상
추진, 정부, 진상규명과 명예
회복조치 발표. 훈장도 재평
가 하기로.
▲18일-“백두”진안공고 승
진 ‘특혜’ 사실 밝혀져, 영남
정 35명중 12명이 정성 진보.
평균 승진율보다 훨씬 높아
의호.
-박정호·임상택씨 곧 구속.
정치 형제에 5억·1억5천만원
받은것으로 검찰수사 드러나.
-국회상임위 ‘북한 핵 해결
촉구 결의안’ 의결.
-장관회의, 방위동성 성역외
해 내달 확정하기로. 5·18회
해자 신고는 7월까지 접수.
-일, 중국인 징용기록 발견.
의무성등 작성 강제연행 실태
상세히 드러나. 진상규명·보
상요구 거세진다.
▲19일-진주지 5·18추모
행사 열려, 80여 대학 경회와
방위를 함께 열어, 광주 10
만명 윤정 진상규명 국민대회
도정서 개회.
-이원준 의원 해외도. 동
화순에 서훈관련 검찰소장 앞
두고 어제 들인 출국.
-강산원, 14개대 3천명 편입
출원 적발 수반대출장중 고발
조치. 광무원 정제 문보.
-일본, ‘감’과견부대 전투하
운 시사. 무도 의사 유언 요
원 보호 목적으로 의회정원
발결.
-검사, 정세비호 의혹, 슬롯
머신사건 관련인사들 중 6~8
명 연루가능성.
▲20일-김종민 의원 24일
소환, 동화은행서 수괴 확인
왜 곧 구속받았. 이원준 의원
·이윤환씨 수배하기로.
-임상택씨 안기부 재직중 정
치 공작방 운영 드러나. KBS
파업·대학 학생선거·보선동
개원.
-공정거래위, 공공기업도 독
과점업체 지정. 한전·KBS등
13개 불공정거래 규제토.
-니미라 유원농협조합과 수산
국민투표 57% 찬성 통과등
여의인정 조호.
▲21일-검찰 슬롯머신수사
관련 비호세력 은폐 의혹.
정세비호와 은밀협상의혹 수
사총괄 시사.
-정규, 남측 고위급 대표회
담 제의 북한에 통지중. 핵문
제 대외 해결 희망.
-위대국조 개신사업 특혜의
혹, 광주중 개신발 송도변경
후 3세대 사업 미회
-안기부 학생회 경찰공작 사
실확인. 김진생씨 ‘비운등
지원’중언 파문.
▲22일-동화은행 비자금·정
제 배부조사에서 검찰 사정수
사 돌린 후회. ‘권력속 눈치보
기’ 비단 여론 강해.
-박정호 의원 발결 조사.
영성 발부. 정덕일씨는 귀가
조치. 재소환 구속 전로중.
-농림부 지녀 수배인구 회
배정. 농림수선부 수배인구
문 무사. 특별회합시 평균 2
배로 지급률이 드러나.
-IMF 상생식 GNP 산정절
과 중점적 제3회, 달러화
기반보다 4배 유도로 산출하